

【서평】

##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여정을 원 안에 담다 손승현, 『원은 부서지지 않는다』 (아지북스, 2007)

강 서 정

(서울대 영어교육과 박사과정)

오늘날 미국을 논함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은 본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의 이야기이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방문(발견이 아니라)한 이래로 서구 유럽 이주민들은 이전에 있었던 원주민의 역사를 폭력적으로 지우고 그 위에 백인의 역사를 덧칠하였다. 원주민 삶의 양식, 영적 생활 등은 스스로의 문화, 종교에 우월감을 느끼는 서구 이주민들에 의해 왜곡, 유린당했고, 자본주의 및 힘의 논리가 서구의 폭력적 약탈 행위를 정당화 하였다. 백인들의 폭력은 미국 원주민의 땅을 빼앗고 중, 서부의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원주민을 보호 장비 없이 우리나라 광산에서 일하게 하였고, 이라크 전쟁을 포함한 국제 전쟁에 투입하였으며, 원주민과 맺은 1000여개의 조약 중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충분한 설명 없이 피임 기술을 하였으며, 인종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원주민 살해를 방기하였고, 이들의 자치와 자생적인 성장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서구 정착민들의 수동적인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고자 하지 않는다. 손승현의 『원은 부서지지 않는다』는 1800년대 백인 정착민에 맞선 원주민들의 투쟁과 희생을 기리며 그들의 전통과 정신을 추적함으로써 정체성을 되찾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여정의 기록이다. 1890년 12월 15일 앓은소 추장이 원주민 경찰에게 사살당한 소식을 접한 큰발 추장은 붉은구름 추장에게 도움을 청하려 부족민과 파인리지

를 향하다가 운디르니에서 학살당한다. 성난말 추장이 문헌 장소이기도 한 운디르니에서 큰발 추장과 부족민들은 1년간 방치된 후, 1891년 1월 초에야 얼은 채 집단 매장되었다. 1968년 명사수버질이 큰발 추장이 지나 갔던 길을 원주민들과 함께 걷는 꿈을 반복하여 꾸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시작된 행사가 현재의 '오마카 토카타기야(미래를 향한 말타기)'로 이어진다.

원주민들과 함께 '미래를 향한 말타기'를 체험하면서 손승현은 이들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나누고 그 체험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억압적인 역사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동, 식물, 하늘, 땅과 함께 살았던 조상들의 정신과 삶을 되살리는 것이다. '와카탕카'라 불리는 위대한 정령은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의 영의 총합'으로서 원주민 정신의 일부를 이룬다. 위대한 정령 앞에 겸손한 원주민들은 땅,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살았다. 버팔로는 이들의 식량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성스런 의식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원주민을 내몰기 위해 버팔로를 멸종시키려 했고, 금을 얻기 위해 땅과 생명체를 함부로 다루었던 백인들을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행렬을 출발하기 전이나 도착한 다음 원주민들은 원을 짓는다. 원은 위대한 정령을 의미하면서 세상의 원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원주민들에게 모든 생명은 하나의 원이며, 따라서 부족의 구성 체계도 원에 기초한다. 파우와우를 쫓 때에도 원을 그리고, 드림캐처나 주술바퀴에도 많은 원을 만든다. 조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의 정신 안에서 과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현재, 미래와 만난다. 조상들의 족적을 찾아가는 여정은 운디르니에서 정점을 이룬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는 지점이며, 새로운 출발선이기도 하다. 낯선 이를 따뜻하게 대하며, 불구가 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말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원주민들, 이니피 의식으로 자신들을 정화하고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다시 일어서려 하는 이들은 "원은 부서지지 않는다(The circle never ends)."고 외친다. 서구 문

화의 침투,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이들의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미국 인디언 운동(AIM: American Indian Movement)이 1968년 이후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구와 같은 스포츠와 종교로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전통 문화와 정신을 계승하고, 법률을 숙지하여 서구 제도권에 대응한다. 구전된 원주민 역사를 글로 복원하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책이나 강의로 알리고 있다.

미국 원주민의 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 문화 안에 깊이 들어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진정성을 잃게 된다. 주목할 점은 미국 원주민의 목소리를 살리고 그들의 역사, 문화, 종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외부인’에게서도 꾸준히 시도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검은 고라니는 말한다』(*Black Elk Speaks*)를 쓴 J. G. 니이하트를 비롯하여 원주민 추장의 전기와 연설문을 채록한 밴더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살려 그들의 정신과 역사를 서구인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원주민의 시각에서 복원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매개자 없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오히예사, 레너드 펠티어 등의 작업과 함께 귀한 의미를 갖는다. 소외되고 억압받는 계층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노력 못지않게 원주민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과 소통하려는 외부의 노력 역시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안에는 미국 원주민이 처한 현실보다 그들의 과거에 몰입하여 신비화함으로써 오히려 원주민의 실체를 지우는 위험성 또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손승현의 작업은 미국 원주민의 행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들의 정신, 역사, 현실을 균형 있게 재현해 내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비록 그의 작품이 원주민의 편에서만 기술되고,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 하여도, 그것은 단점이 아니라 참여 관찰의 자연스러우면서 의도된 결과이다.

원주민의 삶에 참여한 외부인으로서 내부인과 일치를 시도한 손승현은 사진 기록을 삽입하여 그의 체험 및 인디언의 문화를 더 강렬하게 전달한

다. 문자로 전달할 수 없었던 하늘, 땅, 동물, 사람 사이의 조화가 역사적 기록 사진과 함께 원주민의 역사, 정신, 현재, 희망을 이야기 한다. 글과 사진, 예술과 현실, 과거와 현재의 조화는 원주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끈다. 참여 관찰이라는 방법과 함께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미학적인 사진 기록은 미국 원주민의 삶을 외부와 내부의 시선을 교차하여 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손승현의 『원은 부서지지 않는다』는 원주민 역사의 질곡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참다운 정체성과 희망을 그려 낸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이란 나라에서 원주민의 이야기는 늘 배경으로 다루어지거나 관광 산업의 일부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의 조화로운 구성원으로서 큰 원을 형성하고 이 땅에서 북소리와 같은 울림을 남긴다.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부작용을 체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자연, 역사, 삶을 원의 일부로 바라보는 미국 원주민의 세계관은 대안적인 지표가 된다. 작가의 체험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작가 역시 그 원의 일부를 형성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구 정착민 중심의 미국 역사에서 소외되고 지워진 원주민의 과거를 복원하는 것은 거꾸로 미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원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